

## OE4)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포용적 비즈니스 성공 사례-트리플래닛의 네팔 커피농장 크라우드 파밍을 중심으로

홍민경 · 김종대<sup>1)</sup>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MBA, <sup>1)</sup>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과

###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에서 개발 주체로 부상한 사회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BOP (Base/Bottom of the Pyramid)를 가치사슬 단계에 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사례 연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성공 요인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로서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문제를 기업적 운영 원리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底) 개발 국가에서 그 효율이 더욱 크며, 본질적으로 작은 경제 체제를 지향하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적 순환 고리를 창출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개발도상국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적 문제인 빈곤감축 문제에 이러한 모델이 기여할 공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2. 자료 및 방법

연구를 위해 KOICA의 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프로그램에 참여한 혁신형 사회적기업인 트리플래닛의 “네팔 커피농장 크라우드 파밍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해당 기업은 CTS 사업 참여 기업 중 Seed 2 (시험단계)에서 Seed 3(정착단계)으로 넘어간 사례로, 사업적 모델로서의 성공요인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택하였다.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가치사슬의 이해관계자 역할 기여도를 분석하였으며, 임팩트 측정을 위해 투입-산출-결과-임팩트 논리 모형(Input-Output-Outcome-Impact)을 이용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연구 결과, 트리플래닛의 “네팔 커피농장 크라우드 파밍” 사례는 사회적기업도 개발협력에서의 사회문제 해결 및 빈곤 감축에 공헌할 수 있는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기적인 목표 대비 성과 지표는 모두 긍정적이었으나, 장기적인 임팩트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Seed 3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2단계 사업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자를 발굴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가치사슬을 개선한 것이다. 둘째, 유통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크라우드 파밍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에 도입한 것이다. 셋째, 크라우드 파밍에 참여한 개인이 기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농장주가 될 수 있다는 스토리와 현지에서 생산된 커피를 리워드 제공받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 수준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채널을 구축한 것이다.